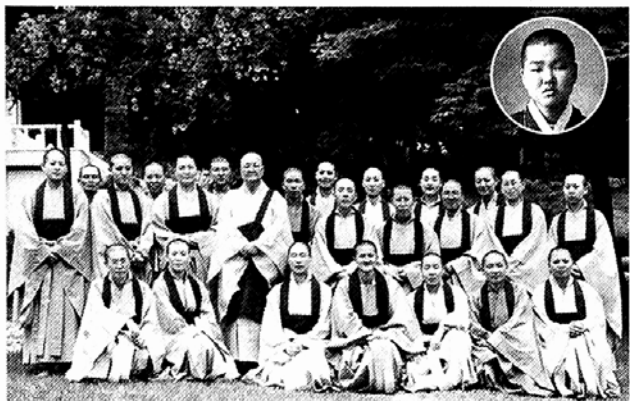


‘회색 고무신’

윤청광 엮음

묘엄 큰스님 삶 소설형식 구성



○세속 나이 칠십이 넘은 묘엄 스님은 지금도 학장 스님으로 강단에 오른다. 원내는 출가 초기의 묘엄 스님.

〈회색 고무신〉(시공사)은 청담 스님의 딸로 태어나 일제시대, 6.25전쟁 등 파란만장한 현대사 속에서 오직 깨달음을 추구하며 평생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온 한 노비구니 스님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행장이다.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불교 정화를 외치던 청담 스님. 그는 노모의 원을

가하도록 이끌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일을 성철 스님이 도맡았다. 두 스님은 참선 정신이 끝나면 공장 인순이가 있는 방으로 인순이를 설득한다. 하루 이를 사들... 인순이를 곁에 앉혀 놓고 성철 스님은 부처님 생애를 시작으로 발명가 에디슨, 아인슈타인, 소크

정신대 피해 진학포기 대승사로 청담·성철 스님 주도 정화운동도 담아

라테스, 공자, 세종대왕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성인과 임금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여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인순이는 결국 절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고 성철 스님이 제자가 된다. 그 주인공이 바로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 이렇게 출가한 묘엄 스님의 사미니 생활은 윤필암과 대승사 쌍련선원을

속을 받은 묘엄 스님은 1957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가 된다. 그 후 동학사와 운문사 강원의 강사를 시작으로 봉녕사 강원 설립과 증창에 이르는 40년의 세월은 한국비구니 강원의 산 역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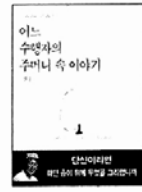
스님의 딸로 태어나 14살에 출가하여 당대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우는 구법행과 강사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스님의 행장이 감명 깊지만 또 다른 재미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주요한 단면을 보게 한다는 점이다. 청담·성철 스님 등이 주도한 대승사·봉암사 결사, 불교 정화 운동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처럼 이 책은 책략한 토양에서 우리의 스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준다.

묘엄 스님의 조카인 김승환(부산대 철학과 교수)이 일 주일 간에 걸쳐 녹취한 내용을 작가 윤청광 씨가 재구성했다. 값 9천원.

출판 담당 = 김중근 기자 gamma@buddhania.com

새로운 책



▲어느 수행자의 주머니 속 이야기(법음 스님 지음, 개미) = 구도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 등 인간의 삶이 지닌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인생 지침서. 삶의 지혜를 밝히는 82편의 글들이 수록된 이 책은 '사랑을 만드는 지혜'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기다리며' 등 3부로 구성돼 있다. 지은이는 서울 용천사 포교원장 법음 스님. 값 8천원.

▲내가 체험한 캐나다(송형승 지음, 자료원) = 토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송형승 씨의 캐나다 이민 생활 체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캐나다의 대학입학 절차와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기가 수록돼 있어,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등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값 8천원.

▲자기 체험한 캐나다(송형승 지음, 자료원) = 토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송형승 씨의 캐나다 이민 생활 체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캐나다의 대학입학 절차와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기가 수록돼 있어,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등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값 8천원.

▲내가 체험한 캐나다(송형승 지음, 자료원) = 토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송형승 씨의 캐나다 이민 생활 체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캐나다의 대학입학 절차와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기가 수록돼 있어,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등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값 8천원.

▲내가 체험한 캐나다(송형승 지음, 자료원) = 토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송형승 씨의 캐나다 이민 생활 체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캐나다의 대학입학 절차와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기가 수록돼 있어,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 등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값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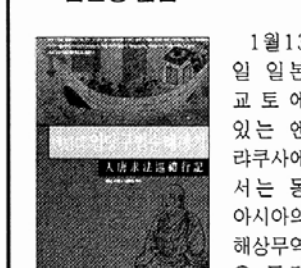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10 books including '성철스님 시공이야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etc.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인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엔닌의 입당 구법...’

김문경 옮김



1월 13일 일본 교토에 있는 엔라쿠사에 있는 동아시아시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해상왕 장보고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일본은 왜 3대 사할 가운데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엔닌이 순례한 산동 일대의 큰 절에는 신라원이 있었다. 이 신라원은 당나라를 여행하는 신라승과 신라인 무역업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장안은 물론 해안의 주요 지역에는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신라방이 있었다. 엔닌은 여행 중 신라원에서 머물기도 하고 통역 등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적산법화원에 머무는 동안 재담 신라인들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과 그 유래와 적산법화원의 강경의식, 일일강의의식, 송경의식 등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엔닌은 이러한 불교의식이 대부분 신라식으로 거행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신라 강경법회의 행법을 전하는

재담 신라인 불교의례 등 담아

엔라쿠사에 장보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가. 그것은 엔라쿠사 주지를 지낸 지카 대사 엔닌이 838년 당나라에 들어가 10년 간 구법순례를 할 때 장보고와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신라인들로 받은 도움 때문이었다. <엔닌의 입당 구법순례행기>(중심)는 엔닌의 당나라 구법순례를 일기체로 기록한 책으로 그가 신라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까이는 신라인이다.

유일한 기록으로 우리 불교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9세기 동아시아 사회상과 재담 신라인들의 활동상을 직접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양학자 라이사워는 이 책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현장 범사의 <대당서역기>와 함께 세계 3대 여행견문록으로 꼽고 있다. 신라사를 연구하고 있는 송실대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회장)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3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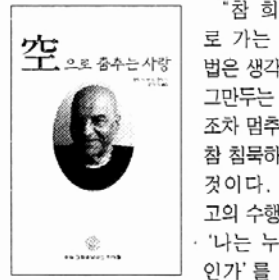
열반에서 다비까지 병진 스님 펴냄



지난해 12월 31일 원적에 드는 계종 종정 해암 스님의 다비과정을 담은 화보집 <열반에서 다비까지>(문이재가 옮김)가

‘공으로 춤추는 사랑’

김병채 옮김



말로 깨닫는 것이다. 인도 아루나찰라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에 의해 진리를 깨달은 슈리 폰자(1910~1997)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탐구방법 제시

다. 신간 <공(空)으로 춤추는 사랑>(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은 슈리 폰자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노래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은 것이다. 폰자는 수많은 방편을 사용하고

스님이 펴낸 이 화보집은 해암 스님이 열반에 든 순간부터 화장과 사리습골에 이르기까지 7일간의 전 과정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다.

‘가야산에 올리는 열반의 종소리’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등 모두 7개

해암 스님 다비 7일간의 기록

의 장으로 구성된 이 화보집은 특히 종단장 소임 구성, 운구행렬 순서, 다비단 준비와 완성, 영결식에 사용된 여러 서식 및 다비문의 한글과 한글 음역 등이 실려 있어 불교화장장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값 2만8천원.

마음을 멈추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말에 얽매이지는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참진리는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르고, 머

리로 이해하는 마음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폰자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 김병채(창원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1만2천원.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삼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율·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모집과정

- 사미과(沙彌科): 사미율의·초발심자경문·치문경훈·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회의식
사집과(四集科): 서장·도서·선문철학·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사교과(四教科): 능엄경·금강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 교단사·불공의식·기도의식
대교과(大教科):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영송·전등록·삼론·고리발달사·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교육기간: 2년(과정별 선택, 통신반 가능)

개강일시: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교수진: 한정성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중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해인 스님(신홍사 주지) 외

강의시간: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 7~9시

접수문의: 나란다삼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란다삼장불학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 이신 三鎧 金海崗 큰 스님의 범매(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코자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기초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12명
교육기간: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모집기간: 3월20일 ~ 4월20일까지
강의내용:

Table with 2 columns: 교육과정, 교육내용. Lists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courses with their respective content.

강사진: 한정성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

강의시간: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특전: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문의처: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